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최후의 것들, 세션 12, 죽음과 중간 상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일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죽음과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두 시대, 현재 시대와 올 시대, 세 가지 차원의 신약성서 하나님 왕국,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시작된 것,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는 동안 확장된 것, 그리고 아직 미래에 절정에 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종말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20세기 전체에서 최후의 일에 대한 신약성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단일 기여는 이미와 아직이 아닙니다. 농담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프린스턴 성경 신학자 게르하르두스 보스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발명한 사람은 그의 글에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것을 가졌지만, 프린스턴이 그러기 전, 보스가 그러기 전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죽음과 중간 상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5:26에 따르면, 우리는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읽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요한계시록 14:13, 지옥과 악인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낮과 밤에 쉴 곳이 없다는 구절의 맥락에서, 그들이 그 장소와 상태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14:13,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기록하라,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그것은 이상한 진술입니다. 죽은 자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농담이에요? 계속 읽어야 해요.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깨질 수 없고, 그와의 연합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세상을 넘어 다음 세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참으로 복이 있다고 영은 말하니, 그들이 수고에서 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 악한 자들은 지옥에서 낮과 밤을 쉬지 못하지만,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의 분노의 잔에 가득 부어넣고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영원히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마지막 원수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기는 것입니다. 아직 이기지 못한 것은 물론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고 비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26.

비록 지금도 이미,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17은 죄에 대한 벌에 대해 경고합니다.

창세기 2:17. 주님은 아담에게 정원의 모든 나무의 맥락에서 당신의 나무는 반드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긍정, 모든 긍정적인 것, 하나의 금지.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17은 죄에 대한 벌, 즉 죽음에 대해 경고한다.

창세기 3:19는 사형 선고를 선언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리석게도 그들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창세기 3:19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고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 것이다. 땅에서 네가 취해졌으니 너는 흙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경고, 실례합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사형 선고의 선언입니다. 그 선고의 집행은 창세기 3:8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나님이 시원한 날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숨었습니다.

즉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과 종족을 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즉각적인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영적 삶이 이미 하나님과의 대면과 구속주의 약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5. 따라서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은 9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인 죽음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9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형벌의 집행은 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우리의 첫 번째 부모입니다. 저는 이브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창세기 5 :5에서 그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2:15.

사실,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4:18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18.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으로 온전해져서 심판 날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필멸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초영적인 존재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족, 친구, 교회 가족, 심지어 직장이나 즐기는 다른 것들, 취미, 삶을 떠나는 의미에서 죽고 싶어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멸성과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몰아내는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형벌을 수반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14과 15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앞 두 구절의 맥락에서 아이들은 택함받은 자와 같은 것, 그와 비슷한 것, 육과 피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님 자신도 아들이 한 것과 같은 것, 곧 육과 피를 공유하셨으니,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가 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저는 필멸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문자 그대로 피와 살을 공유함으로써 대표자가 되었지만, 피와 살이라고 말하지 않는 수용자 언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살과 피라고 하니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살과 피를 공유하므로, 그 자신도 같은 것, 곧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래서 그는 죽을 수 있었고, 죽음을 통해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죽음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죽음은 영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1-3 :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세 가지 원수, 즉 세상, 육신, 마귀를 다루는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며 몸과 마음의 욕망을 행하였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글썄요, 이 서한을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와 다른 도시들에 보낸 회람 서한이든 에베소에만 보낸 서한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매우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신이 한때 걸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5절에서 다시 말한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필멸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바울의 회상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는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24-29에서 보았듯이, 죽음은 영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부활했지만, 기다릴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인자의 음성에 따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영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논리적 단계는 중간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상태를 가르칩니다. 몸 안에서의 현재 상태, 중간 또는 과도기 상태, 즉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몸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영원한 상태 또는 최종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중간 상태, 최종 상태.

현재 상태, 중간 상태, 영원한 상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현재 상태, 중간 상태, 즉 신자와 불신자를 위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후자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구절, 어쩌면 두 구절을 꼽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거의 항상 잃어버린 자들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 가르침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것은 현재 상태, 즉 믿는 자들의 중간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3:43. 아, 맞아요.

전도하기에는 특이한 곳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동료 한 사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다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 중 한 사람이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같은 정죄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하였으니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왕국의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왕국은 충만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90편과 베드로후서 3장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천 년과 같습니다. 아니요, 하워드 마셜이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보여주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몸은 십자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비물질적인 부분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낙원. 또 다른 구약 중간의 방식이며, 이번에는 말씀에 대해 말하고,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 천국.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때때로. 우리의 영? 그렇다.

하지만 보통은 단순히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오늘 중간천국에서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중간천국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6-9장은 이와 관련하여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한 곳입니다. 그가 다섯 번째 봉인, 즉 어린양을 떼었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아직 부활의 때가 아닙니다. 중간 상태이며, 요한은 영혼을 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 믿는 자들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2:23은 같은 현실을 지칭하기 위해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과 신약, 시나이 산 경험, 율법의 부여와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시온 산에 왔습니다. 22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잔치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만아들의 회중, 모든 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씀을 하는 뿌려진 피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9장, 영혼들.

히브리서 12:23, 영. 하지만, 그래서 영혼과 영은 이것에 대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몸과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혼이라고도 불리는 비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구성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진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있을 방식입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무육체적 영적 존재는 성경의 이야기와 신학적 인류학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23에 따르면, 어떤 의미나 의미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속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할지, 아니면 풀려나서 주님을 계속 섬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 다 장점이 있어요.

나는 둘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 바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내가 남아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하여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압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통해 나 안에서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몸에서 떠나는 것, 미안하지만, 몸과 이 삶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는 부르십니다. 이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의 정도. 긍정적, 우리가 잇는 것. 비교급, 최상급.

좋다, 더 좋다, 가장 좋다. 중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면,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좋다. 필멸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로마서 8장. 필멸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23에 따르면, 영적 시온산에 오는 것, 하늘에 오는 것, 중간 하늘은 온전케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에 오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서 죄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다시는 죄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다시는 죄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저는 제 상상력이 제 정경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성경이 제 정경입니다. 저는 시작이나 끝을 정말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제 상상력에 반하여, 또는 상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습니다.

인칭대명사가 중간 상태에 다시 사용되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살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영혼이나 영이라는 단어보다 더 일반적으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중간적인 축복된 존재에 대한 성격, 인격의 연속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입니다.

필멸주의 를 믿는 사람들 , 당신이 죽으면 그게 당신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수하고, 그런 다음 그들은 마지막에 육체로부터의 부활,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을 고수합니다. 저는 그들이 인격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중간 존재는 인격의 연속성과 우리의 존재, 인격의 연속성을 향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자들의 중간 상태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일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은 저에게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는 몸에 집에 있는 동안, 다시 인칭대명사,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으로 보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두 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있고, 차라리 육신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중간 또는 과도기적 존재 속에서 육신 없이 계속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있든 없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말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중간 상태를 가르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믿는 목사들이 거행하는 기독교 장례식에서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것이 주요 기독교 희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슬퍼하지만, 우리의 죽은 형제 자매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달콤하면서도 씩씩합니다. 그들은 죄가 없고 이 모든 구절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훨씬 더 좋다.

고린도후서 5:8 육신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재는 중간 상태를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최고는 아니야. 중학교 때 일 다시 떠올려봐. 좋아.

더 좋다. 가장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몸과 재회하는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큰 포용으로 하나님께 외적으로 입양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으니, 내 아버지께 축복받은 자들아, 오라 . 세상 창조 전에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아마 34절일 거야-그 비슷한 거.

그게 최고야. 이게 최고는 아니야. 중간 상태도 최고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상태 문제를 몸의 부활이라는 더 큰 맥락에 두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중간 상태는 어떨까요? 만약 성경이 신학적 방법에 대한 작은 교훈이라면. 만약 성경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는 바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체계화하고 추측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불신자의 비물질적인 부분이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몸에서 분리되고 그들은 중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간 지옥.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우화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23장. 이것은 의로운 자의 중간 상태를 가르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사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중간 상태를 가르칩니다.

중간 상태이지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것이 최종 상태라고 주장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오, 우리는 이 원리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최종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19과 31.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유가 아닙니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화적 특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19 19 아직도 누가복음 16:19~31까지 못 갑니다. 보라색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아마 스스로도 거기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고 그 이름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상처로 덮으시는 것을 도우셨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개들조차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야. 이건 작은 프랑스 푸들이나 집개가 아니야. 야생 동물이야.

가난한 사람이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데스에서, 그리스어로는 고통 중에, 그는 눈을 들어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담그고 내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마찬가지로 나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당신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당신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이곳에서 당신에게로 건너온 사람들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나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구절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는 교리를 가르칠 수 없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부들은 우화를 꼼꼼하게 우화화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자유주의 신약학자인 아돌프 뤼 리 허는 우화에 대한 그의 책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화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우화가 단 하나의 요점만 가지고 있다는 그의 원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우화는 요점이 하나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화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화는 두 개, 세 개, 그 이상의 요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마다 주요 요점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비유 속의 주요 인물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중간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원하고, 불 속에 있습니다. 지옥 구절에서 불은 고통과 처벌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이 불길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유에서 신적 존재인 아브라함 신부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를 보내어 그의 형제들에게 그 괴로움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사로는 암시적으로 신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이 돕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는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곁으로 갔습니다.

유언서들 사이에서 이것은 중간 천국을 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또는 아브라함의 옆구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은 행복 속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하데스에 가게 됩니다. 이게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무덤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중간 지옥을 뜻합니다. 그것은 문맥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죽음과 하데스는 계시록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것은 Hendiadys의 예인데, 그리스어로 문자 그대로 1에서 2까지입니다. 즉, 두 가지 표현이 얽힌 하나의 개념입니다. 죽음과 하데스는 요한 계시록에서 죽음과 무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중간 지옥에 쓰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화라고 확신하십니까? 포물선적 특징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의 주인, 죄송합니다, 사후세계의 주인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우화입니다. 즉, 사실, 핵심 요점은, 끝 강조의 원리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과 신의 일에 대해 가르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은 물론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하더라도, 사업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록했을 때,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중간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잃어버린, 냉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세상은 그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문은 그 남자를 잘라냈습니다. 나사로는 냅킨으로 사용된 빵 조각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바닥에 던지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완전히 잊혀졌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자에 의해 소외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부자는 고통 속에 있다. 그는 불 속에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큰 틈이 있습니다. 이제,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상반되는 포물선적 특징입니다. 저는 이것이 슬프습니다. 사후 구원의 기회를 가르치는 것.

사실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틈이 있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

여기 정의로운 자의 중간 상태를 가르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의 중간 상태를 가르치는 데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장소.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후서 2:9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불멸, 불멸, 부도덕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슬픔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2:9.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4절: 만일 주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보관하셨더라면. 만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의의 전령인 노아와 일곱 사람을 보존하셨더라면.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로 만들어 멸망시키시고 불경건하게 하셨다면, 이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운 무리를 구출했다면. 그러면 9절에서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련에서 구출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는 법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지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 자신의 삶과 그들의, 감히 말해서 사역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하는 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9절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에 두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사전은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이 장소를 나열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에 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붙잡아 두고 그들의 형벌을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저는 ESV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불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비물질적인 부분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두 번째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중간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정죄에 대한 그들의 위탁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시작되고 , 주님의 뜻대로라면 다음 강의에서 불멸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마지막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죽음과 중간 상태입니다.